CONDERI

MARKET & INDUSTRY INSIGHT | 대외 공개판

AI 사이클의 회계는 주식에서 신용으로 넘어갔다

When the Ledger Moves from Equities to Credit — Three Tests This Week

이 리포트가 다루는 것

지난주 지수는 8월 이후 가장 좋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S&P500 +2.51%). 그런데 같은 주에 코어위브의 5년 신용부도스왑은 1,289bp를 찍었고, 2031년 만기 채권 수익률은 16.7%까지 올랐습니다. 지수가 오르는 동안 AI 인프라의 자금조달 비용은 부도 구간에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이 리포트는 이번 주에 예정된 세 개의 시험대 — 11월 17일 엔비디아 실적, 18일 연준 의사록, 19일 앤트로픽 상장 — 를 축으로 다섯 영역(기술·거시·자본시장·산업과 스타트업·인재)의 숫자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7,561.67
S&P500 11-13 종가
하루 −0.40% · 주간 +2.51%

5.15%
미 10년물 금리
주간 +29bp · 19개월 최대

1,289bp
코어위브 5년 CDS
5년 내 부도확률 60% 안팎

5,290.53
코스피 11-13 종가
주간 +4.56% · 외국인 −5,420억

이번 주 한 장 요약: 세 개의 시험대와 다섯 영역의 숫자

지수는 오르고 신용은 조여졌다 — 같은 주에 벌어진 두 방향의 신호

오늘의 다섯 줄

① 엔비디아는 11월 17일 장 마감 후, 창업자 없이 처음으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가이던스는 매출 1,080억 달러(±2%), 총이익률 74% 수준이며, 옵션시장은 9.1% 안팎의 주가 변동을 가격에 넣었습니다. ② 같은 주에 미국 10년물은 5.15%로 마감하며 19개월 만의 최대 주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10월 CPI(근원 +0.3%)와 약한 10년 입찰(5.02%)이 겹쳤습니다. ③ AI 인프라의 신용 지표는 주가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코어위브 CDS 1,289bp, 2031년물 16.7%. ④ 국내 스타트업 투자는 11월 둘째 주 37개사가 자금을 받았고, 공개된 14곳만 1,141억 원으로 바이오·헬스가 32.4%를 차지했습니다. ⑤ 채용에서는 AI 역량의 *평가가* 인식보다 4배 느립니다 — 취준생 77%가 중요하다고 보지만 채용에서 공식 평가하는 기업은 20%입니다.

−31.9%
엔비디아 고점(10-06) 대비 주가 · 시총 5.8조→3.9조 달러

88.5%
12월 25bp 인상 시장 확률 · 50bp는 11.5% (11-14 기준)

3.7배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 10년 평균 10.2배

+36.7%
10월 수출물가 전년동월비 · DRAM 수출물가는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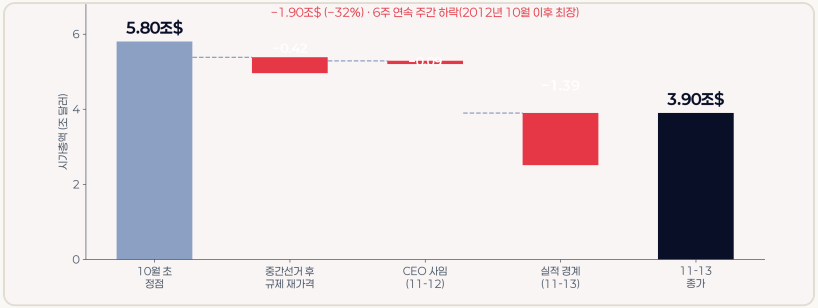
날짜	이벤트	무엇을 보는가
11-16 (월)	연준 의장 워시 연설 · 중국·일본 지표	물가 대응 톤과 12월 인상 폭(25bp vs 50bp)
11-17 (화)	엔비디아 FQ3 실적 · 미 10월 소매판매	4분기 가이던스, 총이익률 74%→71~72% 바닥 여부
11-18 (수)	FOMC 의사록 · 20년물 160억 달러 입찰 · 앤트로픽 공모가 확정	긴축 속도에 대한 내부 이견, 장기물 수요
11-19 (목)	앤트로픽 나스닥 상장(티커 ANT) · 트럼프-시진핑 회동(선전)	AI 순수 종목의 첫 공개가격, 수출통제 완화 여부

I. 글로벌 기술·AI — 창업자가 없는 회사의 첫 성적표

엔비디아 실적(11-17): 가이던스·총이익률·고객 지원, 세 숫자가 승계 리스크를 대신 말한다

창업자 없는 첫 실적

젠슨 황은 11월 12일 회장·최고경영자·이사직에서 즉시 사임했고, 콜렛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가 임시 최고경영자를 맡았습니다. 33년 만에 창업자 없이 여는 실적 발표에서 시장이 보는 것은 지난 분기의 숫자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 4분기 가이던스입니다. 회사는 3분기 매출을 1,080억 달러(±2%)로 제시했고 컨센서스는 1,088억~1,092억 달러, 조정 주당순이익은 2.47~2.48달러로 전년 대비 약 90% 성장입니다. 둘째, 총이익률입니다. 2분기 75%에서 3분기 74%(±0.5%p)로 낮아졌고 회사는 4분기에 71~72%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메모리 원가가 원인입니다. 셋째, 고객 금융 지원의 규모입니다. 엔비디아는 일부 개발사에 투자하고 고객의 데이터센터 임대까지 보증해 왔습니다. 매출의 질과 직결되는 항목입니다.



자료: LSEG·회사 공시·11-13 종가 기준 종합. 시가총액 변동은 공개 보도 수치를 조 단위로 정리

같은 사건, 갈린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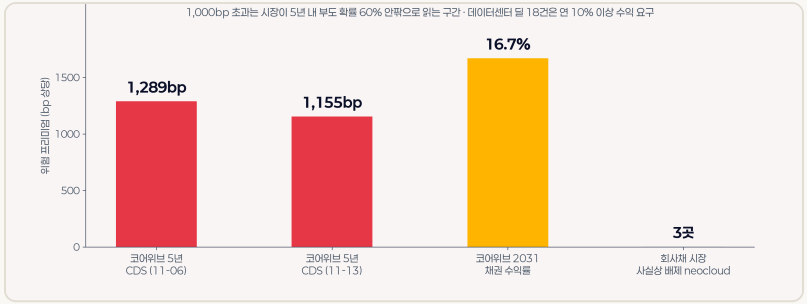
시장의 해석은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HSBC는 투자의견을 보유로 낮추고 목표가를 375달러에서 170달러로 내렸습니다. 승계의 불확실성이 할인율로 반영됐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바클레이스는 비중확대를 유지하며 목표가만 210달러로 조정했고, 일부 운용사는 "살 때"라고 말합니다. 두 해석의 차이는 실적이 아니라 **승계의 구조**에 있습니다. 후임자와 제품 개발·고객 관계의 승계 계획이 제시되는지가 다음 6개월의 할인율을 정합니다.

II. 신용 — AI 인프라의 조달 비용이 자산 가격보다 먼저 꺾였다

코어위브 CDS 1,289bp · 2031년물 16.7% · 데이터센터 딜 18건이 요구하는 연 10% 이상

주가가 오른 주에 신용이 조여졌다

코어위브의 5년 신용부도스왑은 11월 6일 1,289bp를 찍은 뒤 11월 13일 1,155bp로 내렸습니다. 같은 회사의 9.75% 2031년 만기 채권 수익률은 11월 10일 15.5%에서 13일 16.7%로 올랐습니다. 이 수준은 신용평가사가 말하는 부도 위험 구간입니다. 문제는 개별 기업이 아닙니다. 코어위브·네비우스·엔스케일 같은 네오클라우드가 회사채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진행 중인 데이터센터 딜 18건이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장 자금이 아니라 구조조정 자금의 가격입니다.



자료: CNBC·S&P Global·TiIt 2026-11 보도 종합. bp 환산은 16.7%×100 기준

감독당국의 시선

댈러스·뉴욕 연은이 11월 9일 사모직접대출 시장 파일럿 조사를 개시했고 조사 창은 11월 18일 닫힙니다. 집계 결과는 2027년 1분기 공개 예정이며 감독 목적에는 쓰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문장은 "이 시장에 대한 가시성이 제한적"이라는 표현입니다.

기업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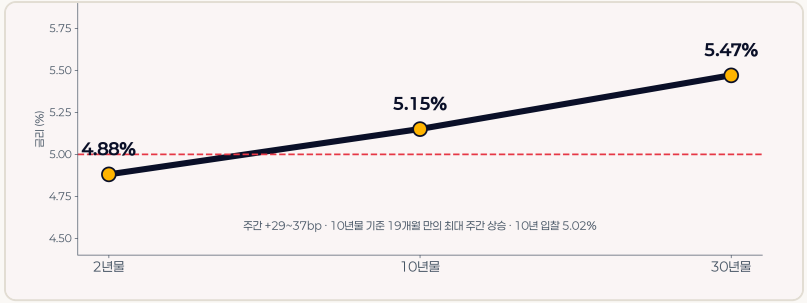
코어위브 경영진은 11월 10일 실적 콜에서 현재 수익률로는 무담보 시장을 쓰지 않겠다고 밝히고 향후 3개월에 약 90억 달러의 고객 선수금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달의 주체가 투자자에서 고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닿는 경로

이 구조는 장비·소재 공급사의 대금 회수 조건으로 전이됩니다. 고객이 선수금으로 자금을 마련하면 공급사는 단납기·현금 결제를 요구받고, 고객이 채권으로 조달하면 공급사는 지급 보증과 유보금 조건을 요구받습니다. 수주 뉴스와 현금흐름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III. 거시 — 5% 위의 장기금리가 모든 자산의 기준선을 다시 썼다

10월 CPI 근원 +0.3%, PPI 전년 +6.5%, 12월 인상은 사실상 확정 — 남은 질문은 폭이다



자료: 미 재무부·연준 H.15, 11-13 종가. 주간 변동은 단축 거래일 기준 보도 수치

물가가 방향을 정했다

10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4%, 근원 +0.3%로 예상을 0.1%p씩 웃돌았습니다. 생산자물가는 전월 +0.3%(예상 +0.4%)로 둔했지만 전년 대비 +6.5%로 2022년 말 이후 가장 빠른 상승이었습니다. 11월 14일 기준 시장은 12월 8~9일 회의에서 25bp 인상에 88.5%, 50bp 인상에 11.5%의 확률을 반영했습니다. 기준금리는 3.75~4.00%입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50bp를 열어둔 발언이 나왔습니다.

원/달러와 유가

원/달러는 1,336원대로 미감해 외국인 매도의 원인은 환율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WTI는 88.56달러로 두 주 연속 내렸지만, 이란 사태가 9개월째 이어지며 해상 운송 차질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10월 두바이유 월평균은 110.73달러였습니다.

한국의 물가 경로

10월 수입물가는 원화 기준 전월 대비 1.8% 하락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13.5% 올랐습니다. 수출물가는 전월 +0.7%, 전년 대비 +36.7%로 수입물가와 방향이 갈렸습니다. 반도체가 수출 단가를 끌어올리고 원자재가 수입 단가를 눌러, 무역 조건은 개선되는 국면입니다.

자금 조달 환경

10년물 5.15%는 회사채 발행의 기준선입니다. 신용등급 A 기업의 3년물 스프레드가 100bp라면 조달 금리는 6%대가 됩니다. 2027년 예산을 세우는 기업은 금리 가정을 5.3~5.5%로 올려 차환 계획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IV. 국내 자본시장 — 반등은 수급이 만들었고, 시험은 월요일 시가에 있다

코스피 5,290.53 · 주간 +4.56% · 외국인 금요일 −5,420억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엇갈린 수급

지표	11-13 종가	등락	수급·해석
코스피	5,290.53	−0.98% (주간 +4.56%)	외국인 −5,420억 · 기관 −60억 · 개인 +150억
코스닥	699.66	+0.45% (주간 +8.60%)	기관 +1,290억 · 외국인 −830억
삼성전자	206,000원	주간 +9.17%	외국인 +1조 2,335억
SK하이닉스	1,216,000원	주간 +7.42%	외국인 −1조 540억 · 기타법인 +2조 1,316억
코스피 선행 PER	3.7배	10년 평균 10.2배	순이익 추정은 60거래일간 +16% 상향
투자자예탁금	92조 2,347억	11-12 기준	80조대에서 회복 · 신용공여 25조 7,729억
원/달러	1,336.2원	보합	환율은 외국인 매도 원인이 아님

지수와 수급이 따로 움직인 주

지난주 코스피는 4.56% 올랐지만 금요일 하루에 0.98% 밀렸습니다. 주중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조 2,335억 원 순매수하고 SK하이닉스를 1조 54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같은 반도체 안에서 방향이 갈린 것입니다. 기타법인의 2조 5,447억 원 순매수는 SK하이닉스 자사주 매입이 대부분으로 추정됩니다.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업황 기대가 아니라 **자사주와 수급의 구조**였습니다.

금요일 밤의 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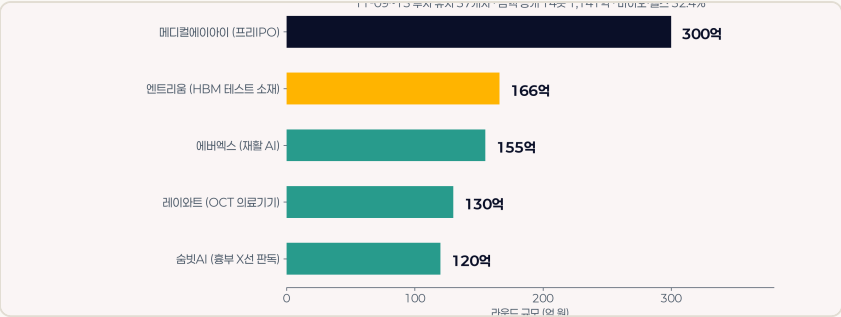
한국장이 닫힌 뒤 열린 미국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43% 하락했고 AMD는 8.75%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사임 보도와 투자의견 하향이 겹쳤습니다. EWY는 1.79% 하락했습니다. 11-16 장 시작 전 나스닥 선물과 SK하이닉스·삼성전자의 시가가 첫 번째 확인 지점입니다.

밸류에이션의 역설

코스피 선행 PER 3.7배는 향후 이익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상황을 가격에 반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익 추정치는 60거래일 동안 16% 높아졌습니다. 엔비디아발 불확실성이 AI 투자 축소로 번지지 않는다면 되돌릴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V. 산업·스타트업 — 1,141억 원이 향한 곳은 AI가 아니라 '검증된 AI'였다

11-09~13 투자 유치 37개사 · 공개 14곳 1,141억 · 바이오 32.4% · 최대 라운드 메디컬에이아이 300억



자료: 더벨·머니투데이·스타트업레시피 11-09~13 집계 종합. 공개 금액 기준

돈은 바이오로, 관심은 AI로

11월 둘째 주 국내 스타트업 투자는 37개사가 유치했고, 금액을 공개한 14곳이 1,141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바이오·헬스케어가 32.4%로 1위, 미디어·콘텐츠 16.2%, 컨슈머테크와 소프트웨어가 각 13.5%였습니다. 단계별로는 지원금이 30.6%로 가장 많아, 초기 기업의 자금 구성이 정부 지원과 민간 라운드로 이중화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목할 점은 **AI가 별도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전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라운드인 메디컬에이아이는 심전도 AI로, 엔트리움은 HBM 테스트 소재로, 솜빗AI는 흉부 엑스레이 판독문 생성으로 자금을 받았습니다.

전략적 투자자의 등장

애드오아시스는 교보라이프플래닛에 이어 교보증권을 전략적 투자자로 확보하고 40억 원 프리시리즈A를 마쳤습니다. 고객이 투자자가 되는 구조는 매출 검증과 자금 조달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소규모 팀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달 경로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국내 베팅

엔비디아가 모티프테크놀로지스·포인트투테크놀로지·업스테이지·리얼월드에 투자했습니다.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칩 공급자가 응용·모델·콘텐츠 기업에 지분을 넣는 방식은 생태계 잠금 효과를 노린 것으로, 국내 AI 기업의 엑시트 경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창업가의 판단

이번 주 라운드의 공통점은 기술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메디컬에이아이는 기술성 평가 A등급 2개로 상장 요건을 갖췄고, 엔트리움은 상반기 흑자 전환으로 가치를 700억 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심사자는 가능성보다 **다음 단계의 요건 충족**을 봅니다.

VI. 에듀테크·교육 — AI 교과서는 2028년, 문해교육은 2027년에 학교로 온다

현장 교사 집필 16개 과목 · 2027년 시범 적용 ·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2027년 5,000학급

교과서가 아니라 저작권이 쟁점이다

교육부는 2026년부터 16개 AI 과목(초 6·중 2·고 8)의 교과서와 교육자료를 현장 교사가 직접 집필하는 체계를 시작했습니다. 2027년 시범 적용과 심의를 거쳐 2028년 3월 정식 적용이 목표입니다. 핵심은 교과서와 별책 교육자료의 이원 구조입니다. 핵심 원리는 교과서에, 최신 기술 동향은 교육자료에 담아 개정 주기를 분리했습니다. AI 기술의 갱신 속도와 교과서 검정 주기의 충돌을 제도로 푼 사례입니다.

문해교육이 별도 기본계획이 된 이유

11월 3일 발표된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은 2026년 학생 실태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허위·조작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2027년부터 학교급별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매년 20종 내외의 수업 꾸러미를 보급하며, 찾아가는 교육을 2026년 360개교에서 2027년 5,000학급으로 확대합니다. 주목할 것은 평가 지표입니다. “AI가 알려준 역사 정보를 교과서와 비교하기”, “가짜뉴스의 근거를 찾아 검증하기” 같은 과제가 제시됩니다. 지식 습득이 아니라 **검증 절차의 습득**이 목표입니다.

에듀테크 사업자의 기회

천재교육은 11월 4~5일 싱가포르 EDUtech Asia 2026에서 교과서 콘텐츠와 AI를 결합한 수업·학습·평가 통합 솔루션을 소개했습니다. 교사 업무 부담 완화, 기기·운영체제 호환, 5개 국어 지원, 데이터 보안이 강조점이었습니다. 국내 검정 체계를 통과한 콘텐츠를 해외 유통망에 얹는 것이 현실적인 수출 경로입니다.

콘텐츠 기업의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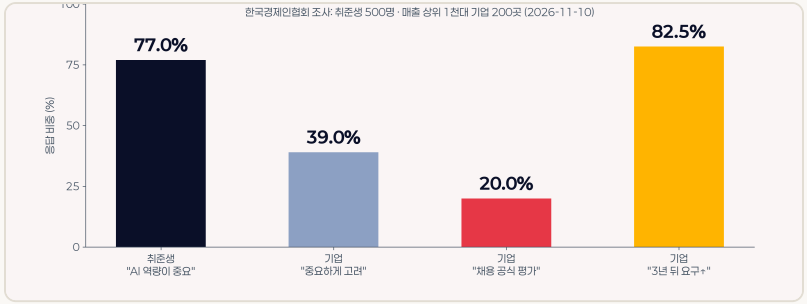
교사가 직접 집필하는 체계는 민간 출판사의 제작 물량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반면 수업 꾸러미 20종, 평가 문항, 교원 연수 자료는 매년 새로 필요합니다. 대형 교과서가 아니라 **연간 갱신되는 부속 자료**가 중소 에듀테크의 실제 시장입니다.

측정 가능한 설계

문해교육 기본계획은 2027년 5,000학급과 교원 연수 1,000명이라는 숫자를 먼저 정했습니다. 예산을 받는 사업은 숫자로 설계되고, 숫자로 설계된 사업은 측정 도구를 필요로 합니다. 평가·진단 솔루션이 붙을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VII. 인재 — AI 역량의 평가 격차가 채용 시장의 새로운 진입장벽이 되었다

취준생 77% vs 기업 20% · AI 바우처 수혜기업 청년 채용 −10.1% · 대졸 신입 28%가 경력자



자료: 한국경제인협회「AI 시대 신입인재 역량에 대한 기업·취준생 인식조사」(2026-11-10)

인식은 77%, 평가는 20%

취업준비생 500명과 매출 상위 1천대 기업 200곳을 조사한 결과, AI 활용 역량이 취업에 중요하다고 답한 취준생은 77.0%였습니다. 기업 중 신입 채용에서 이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곳은 39.0%, 채용 평가의 공식 항목으로 반영하는 곳은 20.0%였습니다. 공식 평가 기업 중에서도 일부 직무에만 반영하는 곳이 16.0%로 대부분이고, 모든 직무에서 필수로 보는 곳은 1% 수준입니다. 기업의 82.5%는 3년 뒤 요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은 격차의 시기이고, 3년 뒤는 기준의 시기**입니다.

청년 채용의 실증 데이터

건국대 이환웅 교수팀은 AI 바우처 사업 수혜 636개사와 탈락 1,603개사를 비교했습니다. 수혜 기업의 전체 신규 채용은 8% 줄었고, 19~34세 청년 신규 채용은 3년간 10.1% 줄었습니다. 초급 업무가 AI로 대체되고, 해고 제약이 있는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첫 계단의 소멸

미국에서도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의 초급 고용은 16% 줄고 경력직 고용은 늘었습니다. 국내 대졸 신입의 28%가 경력을 가진 이른바 중고 신입이고, 300인 미만 기업의 74%는 정기공채 없이 수시채용만 계획합니다. 신입에게 경력을 요구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시사점 **AI 역량은 이력서의 항목이 아니라 면접의 과제가 된다 — 검증 가능한 산출물을 가진 지원자가 기준을 바꾼다**

VIII. 경영 — AI 도입률 80%, 이익 기여 37%: 남은 격차는 검토 설계에서 갈린다

맥킨지 2026 서베이 · 에이전트 운영비의 70~75%는 사람 검토 · 온보딩 처리비 3~5분의 1

80%는 쓰고, 37%만 번다

맥킨지 2026년 글로벌 AI 서베이에서 응답자의 80%가 AI를 사용한다고 답했지만, AI 사용이 영업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답한 비율은 37%였습니다. 2024년 여름 조사에서 생성형 AI의 전사 이익 기여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80%를 넘었던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도구 도입과 이익 창출 사이에는 프로세스 재설계라는 단계가 있고, 대부분의 조직이 그 단계에서 멈춥니다.

맥킨지가 제시한 회계	수치	창업가에게 주는 의미
에이전트 운영비 중 사람 검토 비중	변동비의 70~75%	토큰보다 검토 인력이 큰 비용 — 검토자를 설계해야 한다
은행 고객 온보딩 1건 처리비	50~150달러 → 10~30달러	에이전트 5~7개와 결정형 시스템, 감독 조직 2~4개가 함께 필요
전문가 검토 대상 실행 비중	10~20%	전수 검토가 아니라 표본 검토가 단위경제를 만든다
고급 계획 시스템 도입 효과	재고 11~15% 개선 · 투자 2.6배 회수	투자 회수는 계획 정확도에서 나온다 (규모 150억 달러당 200~300억 원)
파일럿 증후군	다수 기업 해당	여러 실험보다 한 도메인의 끝까지 재설계가 낫다

검토가 비용이라는 사실

에이전트 경제성의 핵심은 토큰 단가가 아니라 **사람 검토의 양**입니다. 은행 고객서비스 에이전트의 경우 토큰 비용은 변동비의 20~25%에 불과하고, 위험·기능 전문가의 검토가 70~7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동화율을 올리는 일은 모델 성능을 올리는 일이 아니라, 검토가 필요 없는 구간을 통계적으로 정의하는 일이 됩니다. 이 원칙은 스타트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에이전트를 늘리는 것보다 검토 기준을 문서화하는 편이 먼저입니다.

IX. 실행 — 세 이벤트를 한 장의 의사결정표로 바꾸는 방법

고객 집중 · 조달 비용 · AI 투자 회수, 이번 주에 확인할 지점과 90일 점검표

이번 주에 결정해야 할 세 가지

이번 주의 세 이벤트는 우리 회사의 예산 가정을 바꿉니다. 엔비디아 가이던스는 고객의 설비투자 지속성을, 연준 의사록은 조달 금리를, 앤트로픽 상장가는 AI 순수 종목의 기준 배수를 정합니다. 세 가지를 하나의 표로 관리할 것을 권합니다.

의사결정	이번 주 확인 지점	판단 기준	실행
고객 집중 리스크	엔비디아 4분기 가이던스 · 총이익률 71~72% 바닥 여부	상위 고객 3곳의 자본지출 계획이 유지되는가	계약서에 지수연동·물량조정 조항 반영
조달 비용	FOMC 의사록 · 20년물 입찰 수요	10년물 5.3% 이상 3개월 지속 여부	차환 일정 6개월 앞당기고 고정금리 비중 확대
AI 투자 회수	앤트로픽 공모가와 첫날 거래 범위	매출 배수가 아니라 조정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재산정	도구 도입 대신 프로세스 1개 완전 재설계

90일 점검표

① 매출을 설비투자 의존과 비의존으로 분리해 비중을 적는다. ② 조달 만기표를 5.30%와 5.50% 두 가정으로 만든다. ③ 계약 상위 10건의 지수연동·환율조정·검수 조건을 한 장에 모은다. ④ 에이전트를 쓰는 업무 3개에 대해 사람 검토 비중과 검토 기준을 문서화한다. ⑤ 신입·주니어 채용 계획에 "AI가 대체한 초급 과업" 목록을 붙여, 남은 과업의 학습 가치를 확인한다.

실행 지수는 세 번의 발표를 기다리고, 회사는 한 장의 표를 준비하면 된다

English Summary / 영문 요약

Three tests this week, and the credit market that moved before them

English Summary

Last week the S&P 500 rose 2.51% to 7,561.67, its best week since August, while the credit market moved the other way. CoreWeave's five-year credit default swap spread reached 1,289 basis points and its 9.75% 2031 notes yielded 16.7%, a level credit analysts describe as distress. Three tests are scheduled this week. Nvidia reports fiscal third-quarter results on November 17 without founder Jensen Huang, who resigned on November 12; guidance is $108 billion of revenue plus or minus 2%, gross margin was guided to 74% with a possible bottom of 71-72%, and options price a 9.1% move. The Federal Reserve publishes the minutes of its October meeting on November 18, with markets assigning 88.5% to a 25 basis point December hike and 11.5% to 50 basis points after October core CPI of 0.3%. Anthropic prices its IPO on November 18 and trades on November 19 under the ticker ANT, offering 825 million shares at $70-78 for a valuation of $1.3-1.45 trillion.

Korea: flows built the rally, credit will test it

The KOSPI closed at 5,290.53, up 4.56% for the week but down 0.98% on Friday when foreign investors sold KRW 542 billion. Within the same semiconductor complex, foreign investors bought KRW 1.23 trillion of Samsung Electronics and sold KRW 1.05 trillion of SK Hynix; a KRW 254 billion net purchase by other corporations was mostly SK Hynix treasury buying. The index trades at 3.7 times forward earnings against a ten-year average of 10.2, while earnings estimates rose 16% over 60 sessions. Venture funding in the week of November 9-13 went to 37 companies, with the 14 disclosing amounts raising KRW 114.1 billion; bio and healthcare took 32.4% and the largest round was Medical AI's KRW 30 billion pre-IPO.

Talent and education

In a survey of 500 job seekers and 200 large employers, 77% of candidates said AI capability matters for hiring, but only 20% of companies formally assess it, and 82.5% expect requirements to rise within three years. A difference-in-differences study of 636 firms that received AI vouchers against 1,603 that did not found new hiring 8% lower and hiring of workers aged 19-34 10.1% lower after three years. In education, the ministry is developing 16 AI subjects written by practising teachers for pilot review in 2027 and classroom use in March 2028, and its digital media literacy plan expands school visits from 360 schools in 2026 to 5,000 classes in 2027.

One line **Equity markets are waiting for three announcements. Companies need one table: customer concentration, refinancing cost, and AI return**

발행 CONDERI AI산업전략연구실 | 문서등록번호 CONDERI-IR-2026-11-16 | 문의 contact@conderi.com